

자료명	2024년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엠바고	4월 1일(월)자 조간 (통신, 인터넷 등은 3/31(일) 12:00부터)
문의처	경제정책팀 김현수 팀장(02-6050-3442), 하서영 연구원(02-6050-3447)

2분기 BSI '99'로 11분기 만에 최고치... 기업 체감경기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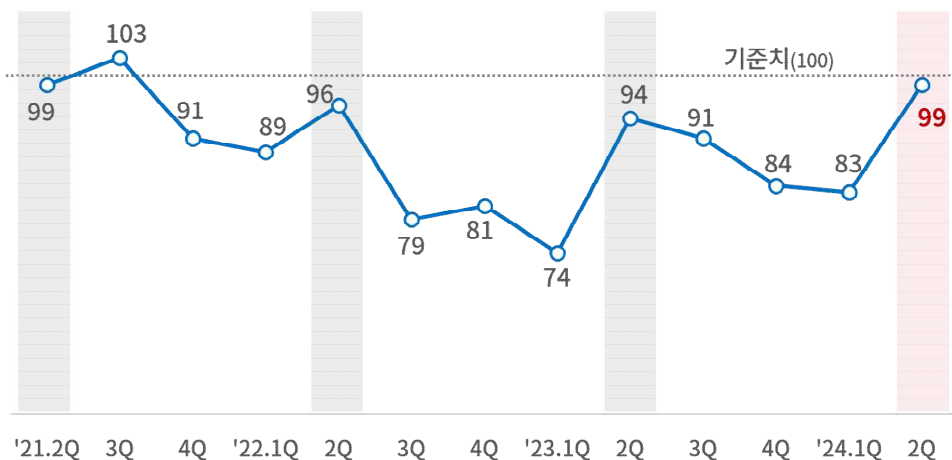
- 2024년 2Q 제조업 BSI 전분기(83) 대비 16p 상승... 수출기업(102)이 기준치 상회하며 상승 견인
- [업종] 화장품(124), 의료정밀(119), 전기(117), 반도체(114) '맑음', 철강(92), 비금속광물(90) '흐림'
- [지역] 호남권(109)은 자동차, 충청권(104)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이어가며 긍정적 전망 우세
- 기업이 예상한 상반기 리스크는 ① 내수소비 위축(55.2%), ② 원자재가·유가 불안정(50.1%) 順

올해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전국 2,23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전망치(83)보다 16포인트 상승한 '99'로 집계되어 3년 만에 기준치(100)에 가장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실적 개선 영향으로 수출기업 전망이 호전되면서 수출기업(102)과 내수기업(98)간 체감경기 전망이 엇갈렸다.

BSI는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그림1> 최근 3년간 대한상의 제조업 BSI 전망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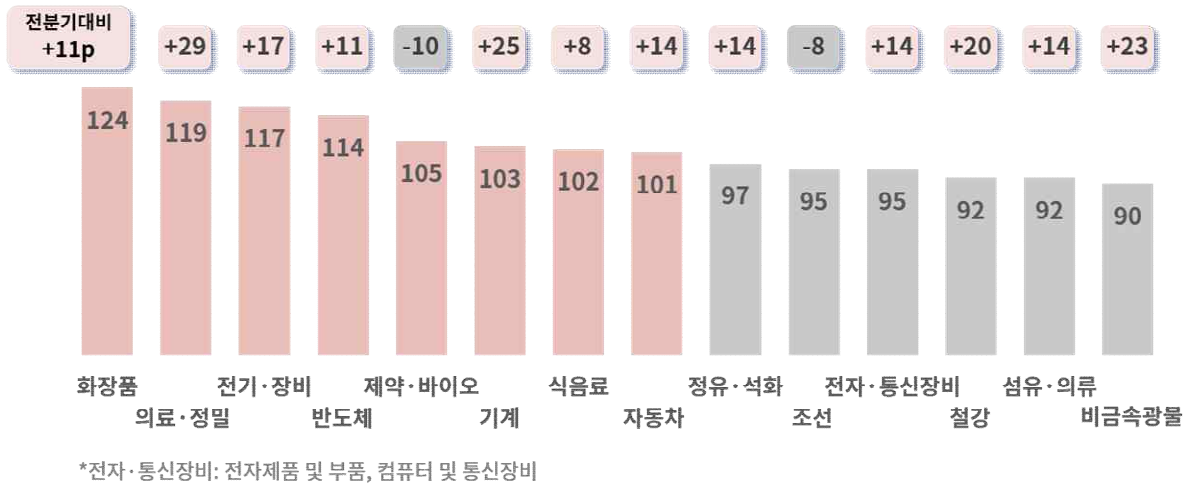


화장품(124), 의료정밀(119), 전기(117), 반도체(114) ‘맑음’, 철강(92), 비금속광물(90) ‘흐림’

업종별 전망은 수출실적이 개선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간 차별화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114)는 글로벌 IT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 및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준치를 상회했다. 또한, K-뷰티 인기의 영향으로 화장품 수요 및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확대되면서 화장품(124)과 의료정밀(119)업종 모두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배터리 핵심소재 가격 반등으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전기(117)도 2분기 호조 전망이 많았다.

반면, 철강(92), 정유·석유화학(97)은 중국 내수부진 및 공급확대로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전망 회복이 제한됐다. 비금속광물(90)은 전방산업인 건설업 위축에 더해 유가, 연료비 인상 등 제조원가 부담으로 지수가 기준치를 하회했다. 기준치 이하로 하락한 조선업(95)은 홍해 리스크 장기화뿐만 아니라 인력난, 중소 조선사 실적저하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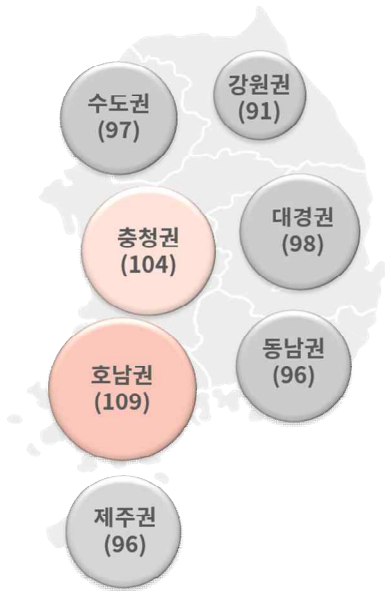
<그림2> 2024년 2분기 주요 업종별 BSI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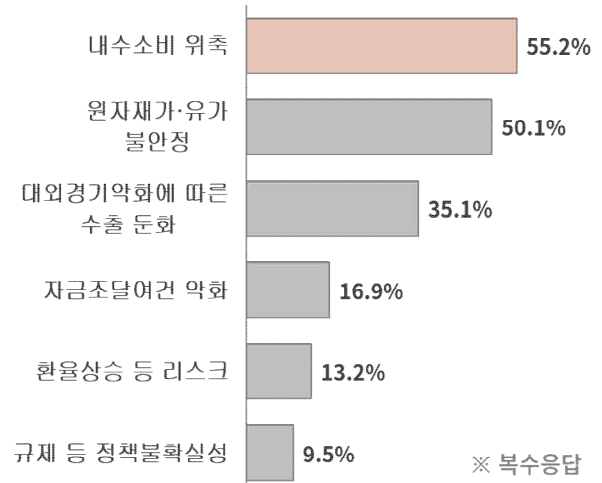
호남권(109)은 자동차, 충청권(104)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이어가며 긍정적 전망 우세

2분기 기업 체감경기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도 자동차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호남권(109)과 반도체 수출비중이 높은 충청권(104)만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동남권(96), 대경권(98)의 경우, 자동차 업황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철강 및 중소 조선사 부진에 따라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부정적 전망이 가장 강한 강원권은 식음료 업체 등을 중심으로 다음분기 체감경기 악화를 예상한 기업이 많았는데, 이는 가격상승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3> 지역별 BSI 전망치




<그림4> 상반기 대내외 리스크



기업이 예상한 상반기 리스크는 ①내수소비 위축(55.2%), ②원자재가·유가 불안정(50.1%) 순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소비 위축’(55.2%)과 ‘원자재가·유가 불안정’(50.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서 ‘대외경기 악화로 인한 수출둔화’(35.1%), ‘자금조달 여건 악화’(16.9%), ‘환율 상승 등 리스크’(13.2%)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기업규제 등 정책불확실성 9.5%, 기타 3.0%, 노사관계문제 2.7%, 복수응답>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반등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내수 불안요인이 기업들의 기대감을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수출 활력을 내수로 연결해 우리 경제가 성장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민간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 조사 기간 : 3/5(화)~3/18(월)
- 조사 대상 : 전국 제조업체 2,230개 사
- BSI지수 산출방식

$$\left[\frac{\text{'호전예상'기업수} - \text{'악화예상'기업수}}{\text{응답기업수}} \right] \times 100 + 100$$